

全社員 PC교육

요즈음 개인용 컴퓨터 PC의 内需景氣가 침체되자 국내 각 메이커들은 수출쪽으로 돌파구를 열어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. 소프트웨어업계에 종사하는 우리들로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.

그러나 수출부문의 호경기가 무한정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한 내수경기의 진작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이다.

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업계가 앞장서서 PC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공급, 수요증대를 촉진해야 함은 어느누구라도 알고 있는 기본적 사항이라 할 수 있다.

유용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겠으나 실제사용자에게 PC교육을 실시하고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일에 PC를 활용토록 하여보자는 발상에 따라 각 기업에서 전사원에 대한 PC교육의 실시가 크게 성행했던 적이 있었다.

이와같은 훌륭한 아이디어가 계속 추진되어 국내 PC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衆智를 모아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.

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다음 사항들을 유념하여 전사원 PC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보다 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.

남궁도진
유니온시스템 이사



첫째는 단기간의 전사원 교육으로는 소기의 목적달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. 장기적 안목에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만 목표달성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다.

둘째는 과장·부장 등 상위계층일수록 업무수행내용이 다양하고 추상적이므로 관리계층의 업무를 컴퓨터출력을 위해 정형화시키려는 무리한 노력은 업무수행의 불편성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

초기에는 오히려 문서작성(WP), 票계산 등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기능을 살리는 것이 관리자와 PC간의 親和力을 도모하는 棼경이 될 수 있다.

세째는 베이직등 컴퓨터 언어교육을 가급적 止양함으로써 PC 공포증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점이다. 베이직(Basic)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이의 습득이 PC활용의 목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.

가급적 손쉽게 활용이 가능한 각종 簡易언어나 통합패키지를 권장함으로써 실제로 컴퓨터의 편리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.

PC의 大衆化, 이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업계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의 목표인 것이다.